

이현상의 글, <혈투의 30여 성상>

SalvadorAllende

인민공화당의 당수이며 민전 의장단의 의장인 김원봉 장군은 생애를 항일 구국의 혁명투쟁으로 장식해온 열혈의 애국자요, 인민의 충실한 지도자이다. 김장군은 적 앞에서 타협이나 굴욕을 모르는 완강한 전사였다. 기미년 전후 해외에 산재하던 망명 정객들이 상해에 모여 조선 독립을 파리강화회의 등에 청원운동을 통해서 실현해 보려고 할 때 장군은 단호히 이런 타협적 운동에 반대하여 강화회의에 출석한 일본 대표를 베어 죽여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조선 민족의 항쟁하는 태도를 널리 보여주려 했다.

그뒤 만주로 가서 의열단을 조직하여 무장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수괴를 도살하고 일본의 통치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였으니 이것이 초기에 있어 그의 비타협적 혁명적 투쟁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함에 있어서 김 장군의 구상과 투쟁은 더욱 웅대하게 발전하였으니 강대한 군대를 조직하여 원수 일본과의 당당한 결전으로부터의 해방을 촉진하려 하였다.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공동의 주적으로 하는 조선과 중국 양 민족은 항일 연합전선을 가져야 한다는 지론과 신념 밑에서 조선의 용대를 조직하여 그를 따르는 동지와 중형무진한 전략전설로서 여러 전쟁터에서 창연한 전공을 세워 일제에 대한 조선 민족의 원한을 마음껏 설욕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로 하여금 패전의 원인을 가져오는 커다란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굴복을 모르는 이 비타협적 장군은 조선 인민 앞에서는 한없이 겸허하였다. 장군은 민족의 총역량을 대일항쟁에 총집중하기 위해 해외조선민족의 역량 결집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리하여 항일전선통일연맹, 민족전선통일연맹 등을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김 장군의 혁명사업을 방해하기에만 열중하던 완고한반동 정객들의 집단인 임정에까지 참가하여 그들을 옳은 정치적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김 장군의 비타협적 투쟁정신은 언제나 무원칙적, 무조건적인 것은 용인할 수 없었다. 특히 임정 완고파들의 소위 법통 고집과 반민주적 경향만은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다. 여기서 김 장군은 이들 완고파와 단호히 손을 끊고 인민의 편에 참가한 뒤 싸우는 인민을 독려하여 장군의 그 비타협적 투쟁정신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장군의 오늘까지의 빛나는 혁명적 투쟁 기록은 장군의 그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장군은 어디까지나 의지의 사람이며 담력의 사람이며 결단의 사람이다. 구적 일본과의 삼십여 년에 걸친 불요불굴의 투쟁은 장군이 가진 강철 같은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다. 장군의 의지는 이러한 항일구국의 투쟁 속에서 더욱 굳어지고 다져졌으니 이제 이러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군의 앞날은 어떤 난국이 있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힘은 없는 것이다.

오늘 장군은 조선 인민의 충실한 지도자로서, 민주 진영의 중요한 전사로서 꾸준히 싸우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은 장군에 대해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 기대와 아울러 장군의 앞날은 더욱 찬란할 것이다.

출처 : 약산 김원봉 평전 p. 562~564